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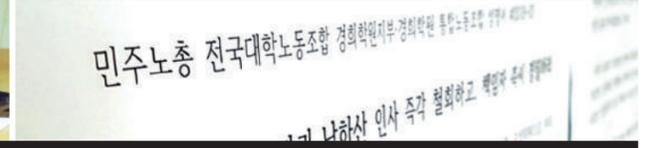
3>> 온라인 강의, 무모한 확대는 안돼



4~5>> 총장선출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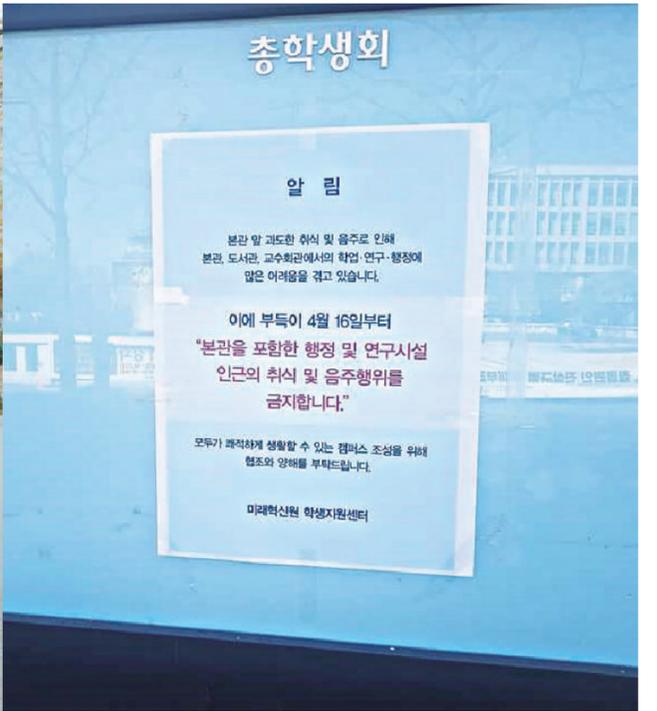


6>> 경희학원노조, 총장 향한 대자보



본관놀이 후
청소하는 노동자들

청소노동자가 본관놀이 후 학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청소노동자 심한식 씨는 “학교에서 오는 16일부터 본관놀이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본관놀이를 하지 않을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미래 혁신원은 지난 11일 오후 16일부터 본관을 비롯한 학내시설에서 취식 및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사진=김동욱 기자)



건축학과, KAAB 재인증용 자료 유실 소속학생들, 재인증 영향줄까 ‘우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재인증에 필요한 학생제출물 일부가 사라졌다. 이에 작년 11월 10일과 올해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축학과 소속 학생들은 학생제출물의 재제출을 요구하는 공지를 받았다.

지난 5일, ‘건축법규’와 ‘건축구조의 이해’ 수업에 수강한 학생들은 “제출했던 레포트가 사라졌다”는 공지를 받았다. ‘건축법규’를 수강한 학생이 받은 공지는 “책임 소재가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아야 하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며 레포트와 에세이를 재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앞선 지난해 11월, 건축학과 사무실은 공지를 통해 “최근 지난 5년간 행정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자료를 옮기는 도중 상당수 파일이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며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제출했던 디지털 자료 및 전사자료를 일주일 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C씨는 이에 대해 “포드폴리오는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과제가 끝나면 제출 후 파일을 아예 지우거나 외장하드에 옮겨 놓기도 한다”며 재제출 요구에 황당함을 표했다.

KAAB 인증을 받는 것은 건축학과 재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실무경력만 쌓고

2018학년도 건축학과 KAAB 인증 만료

재인증 여부 학생진로에 큰 영향미쳐
외장하드 고장으로 재인증 위한 학생성과물 일부 유실
성과물 재제출 요구에 학생들 ‘황당’

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사 예비시험’을 보고 난 후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건축학과 졸업생 A씨는 “2018학년도 이전 졸업생들은 인정된 상태로 졸업해 다행이지만 만약 재인증에 실패할 경우 현재 졸업예정자들은 ‘비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진로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씨 또한 “예비건축사 시험을 치지 않고 실무경험을 쌓은 후 바로 건축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 만큼 인증과정은 까다롭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형, 3D 그래픽, 시험지, 레포트 등 건축학과의 지난 5년 간 모든 교육과정 및 성과물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학과 학생은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학과 웹하드에 자료를 제출하며 과사무실은 이를 모아 보관한다.

특히 최근 1년간의 성과물은 실물로 전사해 KAAB 심사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2013년 KAAB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해 14

일 재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자료 유실에 대해 건축학과 학생회 최진모(건축학 2013) 회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인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 두 개의 자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학과 김일현 학과장은 “대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웹하드에 자료를 상시적으로 보관하지 못하고 외장하드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일부 유실했다”며 “외장하드가 고장 나 외부업체에 복원을 맡겼지만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학과장은 “9명의 교수님들께서도 자료를 관리하고 계시지만 중심은 외장하드”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분실된 자료를 완벽히 복구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B씨는 “전시 대상물의 주인이 군대에 가 있거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제출 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모든 자료를 다시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김 학과장은 “5년간의 자료는 참고자료이고 최근 1년간의 자료가 중요하다”며 “1년 치는 최대한 재제출 받아 수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학과장은 “우리학과 교수님들께서 재인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며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AB 관계자는 “소수 한 두 명의 자료가 빠진 것을 이유로 무조건 재인증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인증 실사가 있을 때까지 5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의 성과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 왔다는 가정 하에 최근 1년의 성과물을 전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양의 성과물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건축학과와 경우학과 자체 서버를 구축해 학생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사무실 직원은 “학생들이 자체 서버에 올리면 학과 사무실에서 자료를 관리한다”며 “자료가 분실된 경우는 없었지만 혹시나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의 경우도 각 과목 담당 교수가 자료를 취합해 웹하드에 올리는 형식이다. 한양대 건축학과 사무실 직원 역시 “자료가 분실된 적은 없다”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다. 연세대 건축학과 학생은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아카이브’에 본인 자료를 직접 업로드한다.

총장선출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구성원 참여’ 여부 공동 관심사

총장선출제 간담회

정리: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간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지난 3일, 우리신문이 ‘총장선출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주제로 주최한 공개 간담회가 청운관 302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말로 다가온 현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학내 네 기구의 대표가 모여 총장선출에 대한 대답을 나눴다.

간담회 패널로는 교수의회 이성근(관광대학원) 의장, 노동조합 김중현 위원장,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윤단비(무용학) 위원장,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희완(사회학 2014) 위원

장이 참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사정상 불참했으며, 우리신문 박지영 편집장이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 중 구성원의 참여 없이 법인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학교와 성균관대, 중앙대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총장선출제에 대한 각 구성원 대표의 생각과 대학평의원회에서 발표한 모델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또한 법인의 고유권한인 총장선임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간담회 내용은 가독성을 고려해 재구성됐다.

▶4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전문가 칼럼

허상으로 가려진 우리사회의 ‘치부’
이성렬(응용화학) 교수 >>7면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로 인해 4주 뒤인
5월 14일에 발행됩니다.